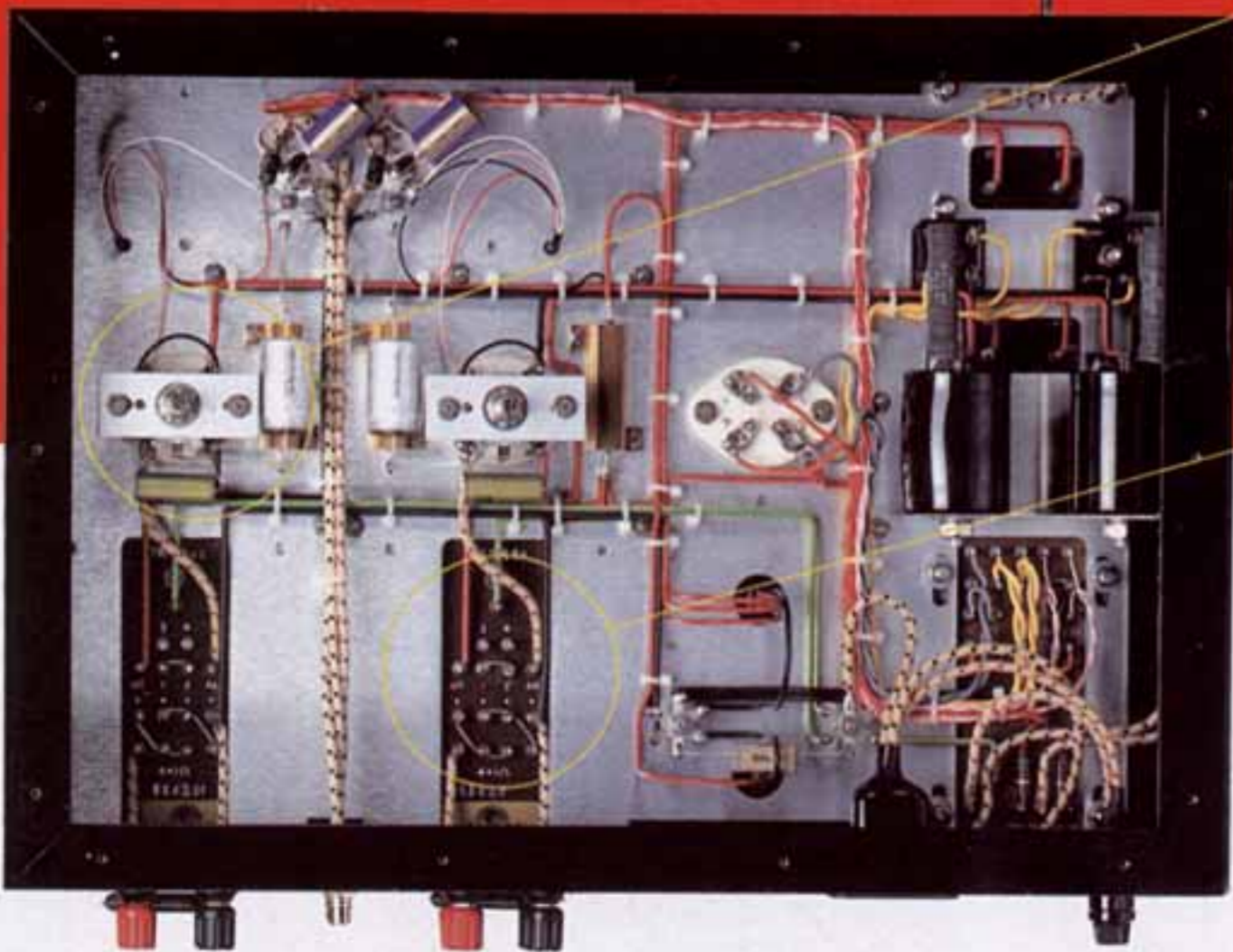


TRON

더이상의 고급은 없다.



엄청난 물량의 투입
특주품 PARTRIDGE TRANSFORMER와
WESTERN ELECTRIC 300B를 사용한
완성도 뛰어난 최고의 걸작

기존의 300B 8-watt tube의
개념을 뛰어넘는 저음의 박력,
나긋함과 강렬함
폭포수의 굉음 속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 !!!



TRON 300B

POWER AMPLIFIER
₩18,500,000

●실효출력:8W+8W ●입력단자:언밸런스 1계통 ●입력 임피던스:100k Ω ●입력레벨컨트롤:없음 ●스피커 선택 스위치:없음
●소비전력:200VA ●사용진공관:300B×2개, 5Z3×1개, 5842×2개 ●크기:W23.5×H46×D33.5cm ●무게:44kg
●수입원:FM사운드(02-3272-5847)

제작자가 존경스러워지는 완성도 높은 300B의 걸작

나는 가끔 전시회장을 찾는다. 거기에는 작가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린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때로는 땀도 흘리지도 않고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작품을 대할 때도 있다. 이 말을 작가가 듣는다면 화를 낼 일이지만 내가 느끼기엔 분명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다.

오디오 제품들을 시청하면서 나는 미완성작품이란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예를 들면 중고역은 좋은데 저역은 풀린 상태 그대로 둔다든지 저역은 그런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고역이 덜 다듬어져 갈갈하다든지, 또는 저역과 고역의 무게 중심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강조된다든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더러 있었다.

이 트론 300B를 듣는 순간 이 작품을 만든 분에게 심심한 존경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표하고 싶다. 완성된 작품을 이 세상에 내놓은 분에게 정말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이

다. 낱땀을 직접해 본 필자로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안다. 수많은 부품 중에 저항 하나만 바뀌도 소리가 아주 달라져서 전체를 재설계해야 되는 고충도 겪어본 사람인 만큼,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내놓은 분에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품의 메커니즘의 특징은 콘덴서 사용을 최대한 줄인 데 있다고 한다. 또 출력 트랜스는 파트리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초단과 300B 사이에 콘덴서 대신 트랜스를 연결했음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배선 연결도 회로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하드와이어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을 구할 수 없고 하드와이어링을 할 줄 몰라서 이런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작자의 제품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걸어보았다.

프리앰프는 CAT SLI시그너처 MK II, 스피커는 JBL 4344란 라인업으로, 소프라노인 신영옥, 조수미 그리고 헨델의 메시아 등의 CD를 주로 들었다. 또 소편성곡으로는 장영주와 정경화의 CD 몇 장을 걸어보았다. 300B 싱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성악과 실내악을 듣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앰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이 앰프 역시 발군이다. 특히 이 앰프의 특징은 음의 안정감이 아주 좋고 음 역시 차분하다. 다음으로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300B 싱글로 대편성곡을 만족스럽게 듣겠다는 발상은 무리이다. 출력 8W로는 역시 한계에 부딪힌다.

다시 한번 이 앰프에 대해서 말하자면 300B 싱글 앰프로는 완성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점이다. 성악이나 실내악 위주로 듣는 분들에게는 아낌없는 추천을 하고 싶다. 약 30년 후에는 분명히 명기로 남을 만한 걸작이다. 이 앰프를 만든 회사가 아닌 만든 분에게 진정 존경

의 뜻을 보낸다.(김신규)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가 질게 투영된 개성 덩어리

진공관 앰프의 디자인이 일종의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빈의 쇼 원도에서 그 옛날의 오스트리아나 독일제 앰프들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다. 디자인이란 사람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기기의 자태를 보는 즐거움은 사실 오디오의 재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음질은 훌륭하지만 디자인 감각이 그에 못 미치는 앰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앰프를 대하는 순간, 그 우아한 디자인으로 하여, 마음 속에 쌓이는 그리움의 가닥들로 간직해 두었던 빈의 진공관 앰프들이 새삼 떠오르며 오버랩되었다.

처음 들어본 곡은 하이팅크가 지

휘한 라벨의 '볼레로'였는데 그야말로 환상의 극치로, 놀라움이 앞섰다. 바로 얼마 전 매우 감탄하며 들었던 실바톤 C-103 프리앰프가 표현했던 사실감의 극치와는 어쩌면 정반대의 경향이지만, 이는 듣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자기만의 음악 세계가 질게 투영된 개성 덩어리라는 느낌은 강하게 받았다.

이어서 들어본 곡은 최근 필자가 지휘하여 녹음한 요셉 수크의 관현악곡집.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한 바도 있었던 그 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니. 실제로는 약간의 어두운 색채감을 지닌 체코 마르티뉴 필의 현악기군 음색이 마치 빈 필의 그것처럼 화사한 투명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각 악기군이 지닌 고유의 색채감이 실제 레코딩과 모니터링시의 그것보다 훨씬 짙은 농염함과 현란함으로 다가와, 듣는 이로 하여금 관현악이 지닌 색채의 마술

에 한껏 빠지게 한다. 또한 음의 굴곡성이 뛰어난 탓인지 프레이징을 노래하는 칸타빌레의 아름다움도 각별했다.

한편 LP로 들어본 데이비스가 지휘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1번에서는 한마디로 무자극의 음의 세계가 펼쳐졌다. 어쩌면 천국에서 듣게 되는 음악이 이처럼 부드럽고 꿈결 같은 것일까. 그만큼 아름다웠던 것이다. 이어서 들어본 성악곡과 실내악곡들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으나 피아노곡에서는 다소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도 특유의 부풀리는 듯한 음이 피아노의 재생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싶었다. 보다 다양한 스피커와 매칭을 시도해보면 이 앰프가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영국에서는 아방가르드의 혼형 스피커와 물려서 데먼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한다.(박성준)

